

## ◇ 자 료

## 丁若鏞의 「醫零」 2.

김 대 원

서울대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 反胃說.

庚申년 가을 李判書(鼎運)가 反胃<sup>1)</sup>로 목숨을 잃었다(損館). 그 병이란 대개 음식과 약 따위를 먹어 삼키면 바로 토하는데, 혹 一 二刻정도 관찮다가 토하기도 하지만 다른 아픈 곳은 없었다. 내가 菰川에 있을 때 이미 그 병은 달을 넘긴 후였다. 처음 가서 그를 보니, 뼈가 앙상하고 피부는 검었으나 神識은 오히려 환했다. 내가 그가 복용하는 方들을 보니 처음에는 酒熱로 그것을 치료하였는데 대개 黃連, 마른 칩뿌리 따위를 사용하였고 후에는 氣가 나가므로 점차 人蔘, 半夏와 같은 무리를 사용하였는데, 淸涼한 味의 약재를 반드시 한 두가지 첨가하였다. 그러나 또한 한가지 方을 한번을 넘기지 않고 여러번 바꾸니 오래될 수록 [병이] 더 심하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반위를 치료하는 법은 다른 것과 매우 다르다. 오직 두 글자를 새겨야 하니, “천천히”(徐)와 “오래도록”(久)이라는 글자가 그것이다……<sup>2)</sup> 하루에 一分씩 늘여가면 邪氣가 하루에 한발씩 물러날 것이다……<sup>3)</sup> 이것으로 하지 않고, 藥方을 가벼이 바꾸어 溫涼을 섞어 복용하면 병이 점차 나아지지 않으니, 멸할 수 있겠는가. 대저 약을 삼켜서 토하지 않는데도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약의 죄이다. 오직 反胃라는 한가지 증세는 단 한번에 나을 수 없는 것이니 거듭해서 그 양을 바꾸어 나간다. 또 여러 병들의 경우 약이 들어가면 토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처방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데, 이 증세는 그렇지 않다. 진실로 꾸준히 차츰차츰 하지 않으면 「병을」 그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쉽게 알 수 있는 理이다. 또한 黃連 등은 비록 들어가면 바로 그 苦寒의 독을 내기 때문에 족히 元氣를 剋消하지만 蔘은 性氣가 平和하여 누적되지 않으면 효력을 얻을 수 없다. 만약 이 병에 매일 인삼 한 兩쯤과 丁香 한 돈쯤을 다려 한입에 한번을 마신다면 십일쯤 지나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다.

## 煎藥說.

湯藥을 반쯤 끓이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이 없다. 가라앉음과 뜨는 것으로 그 흔적을 보겠는가. 끓고 용솟음치고, 뛰어오름으로 누가 그 바름을 알겠는가. 氣가 서로 합하여 어리고 훈훈하여 습기가 있는 것으로 누가 그 흔적을 보겠는가. 장차 저울을 들어 그 평함을 알겠는가. 그것에 손대면 엎어지고, 그것을 기울이면 깨어지니, 잘못된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 모두가 세밀한 까닭으로 근심함에 족하지 않다. 원래 그 약이 약되는 까닭은 오직

1) 음식을 먹은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게우는 병증이다.

2) 非寒熱……

3) 若至天平鍾上正氣……則建領之勢迎刀而解矣.

氣味가 사용되기 따름이다. 味는 氣에 부속되고, 性은 味에 부속된다. 그 氣를 잃으면 그 味를喪하고, 그 味를喪하면 그 性을 보내어 버리니, 氣가 이미 떠나 버렸는데 性味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지금 藿香<sup>4)</sup> 한가지 味에 대해 논해보자. 시험적으로 藿香 一撮을 東家の 堂에서 다려보자……. 一坐의 香山과 枳殼이 그 香을 누설함이 이와 같은데 오히려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一座의 山이라도 애석하다. 하물며 처음 다릴 때부터 찌꺼기가 나올 때까지 사이에는 양이 줄지 않겠는가? 여러 時동안 香氣가 누설되고 중단되는 시간이 없다. 形이 있는 物을 더듬어 집게 할 수 있게 한다면, 어찌 百座의 香山을 이룰 수 없겠는가. 대저 한줌의 약으로 그 氣를 누설함이 山과 같은데, 百이 어찌 힘이 있어 가히 臟腑에 물대고 經絡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끓이지 않는 것만 못하고(별도의 법이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끓이되 그 氣가 누설되지 않게 한다. 내림물 한종지를 薄銅器를 사용하여 두레박의 입구에 두고, 습지로 그 틈을 봉한다. 다음에 冷泉을 박동기에 대어 준다. 그릇중에 열이 있으면 그것을 바꿈이 소주법에서와 같다. 기가 끓어 그릇에 도달하면 차가움을 만나 이슬이 되고 두레박으로 돌아와 떨어진다. 따라서 찌꺼기를 거를 때에 이르면 역시 한종지이다. 이것은 좋은 법이다.

雜說(술다리는 법<sup>5)</sup>, 인삼다리는 법<sup>6)</sup>, 産用參<sup>7)</sup>).

약을 다릴 때 술을 물과 함께 반쯤 다리면 술의 효과를 볼 수 없다. 대체로 술의 다림에 의해 기가 전부 빠져나가고 또한 약의 찌꺼기에 (술이) 스며들게 되어 이미 여과된 것에는 酒味가 없다. 만약 약을 다려 찌꺼기를 제거한 후 술로 조절하여 복용하면 酒力은 두배가 된다.

약의 용량을 많이 해서 쓸 때 人參 한 두돈을 넣으면 인삼즙은 거의 다 약재에 스며들고, 또한 漚布에 묻게 되니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마땅히 인삼을 따로 다린 후에 다른 약재와 서로 골고루 잘 섞어서 복용하면 이런 폐단이 없다. 혹자는 각각 다리면 氣味가 서로 투합하지 않게 되어 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理가 아닌 말이다……<sup>8)</sup>

雜說二 腎俞穴.<sup>9)</sup>

煉臍의 法(배꼽을 단련시키는 법)은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다. 나는 煉臍의 [法] 이외에 따로 한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이 法은 煉臍의 [법]과 비교해 볼 때 더 神効가 있다. 尻骨의 위와 脊膂의 끝의 꼭 들어간 곳(이 곳이 신유혈이다)은 안으로는 腎經과 응하고 命門이 있는 곳이다. 대체로 추위를 당하여 복통, 虛寒<sup>10)</sup>, 滲泄이 생긴 것이나, 또는 痢疾<sup>11)</sup>, 後重<sup>12)</sup>, 下腹疼痛,

4) 꿀풀과에 속하는 방아풀과 광곽향의 옹근풀을 말린 것이다. 맛은 맵고 성질은 약간 따뜻하다.

5) 옛날부터 약의 찬 성질을 약화시키거나 덥게 하며 또 약기운을 위로 올라가게 하고 기혈을 잘 돌게 하기 위해 동약을 술에 법제하여 사용하였다(酒製). 그 방법에는 술씻기(酒漚), 술담그기(酒浸), 술찌기(酒蒸), 술삶기(酒炒), 달구어서 술에 담그기(酒淬) 등이 있다. 이 방법 중 酒煎은 酒蒸일 것이다.

6) 원문에는 “參”이 아닌 “參”으로 되어 있다. 본문 중에서도 모두 “參”으로 표기되어 있다.

7) 「醫零」의 양끝이 잘려나간 부분에 이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다.

8) …… 縮砂概多作末調服調服尚然況 …… 季婦人當何如也. 然產後大虛理之常也. 若氣 …… 意亦無妨.

9) 족태양방광경의 혈. 신의 배유혈(척추의 양쪽으로 내려간 방광경 1측선에 위치하면서 5장6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혈. 배유혈은 5장6부의 경기가 잔등에 주입되는 곳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이다. 제2, 제3 요추극상돌기 사이에 양옆으로 각각 2치 되는 곳이다.

그리고 外腎寒冷, 囊丸水濕 등의 증상에는 좋은 쑥을 써서 10여壯 이상 뜸질하면 煉臍法에서와 같이(肉灸는 금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고통은 가라앉게 된다. 이것은 대체로 命門의 火기운이 쇠퇴해진 것에 주로 쓰이는 方이다. 비록 소년이라도 날 때부터 下部가 虛冷한 자는 반드시 효력이 있고, 痢疾, 後重에 더욱 신효가 있다. 내가 아픈 것이 바로 冷痢가 아닌지 모르겠다(李蔽陽은 일생동안 건강하였는데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물에 접하기 전에 손을 내밀어 腎俞穴을 10여차례 문질러 주어 열이 난 후 멈추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百病이 없어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寒에 傷해서 병이 된 것은 곧 흘뜨리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옆치락 덮치락하면서 퍼져서 머물면 반드시 큰 질환이 된다. 나는 매양 手足枯冷, 神氣怯弱하여 찬바람이 돌았다. 질환에 감염됐다 싶으면 항상 藿香正氣散<sup>13)</sup>을 사용하였다. 혹 낮지 않으면 金正氣散 一劑 조금으로 바꾸었다. 반드시 방귀가 3-4차례 올랐고 배속은 시원하였고 신기가 頓清하였다. 病意가 미약할 때는 혹 마른 생강을 씹어 체증을 씻어 내리거나 혹은 뜨거운 차를 마셔 가슴을 뚫게 하면 두루 그것을 풀 수 있다. 만약 유행하는 微感과 관계되면 속칭 鼻角之類라 한다…….<sup>14)</sup>

### 雜說三.

우리나라 清心丸은 천하에 유명하다. 그러나 세상에 어찌 30여가지의 종류를 합쳐 하나의 丸을 만들더라도 그 효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대저 淸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中喝<sup>15)</sup>이나 氣實<sup>16)</sup>한 것에 복용할 수 있는 것이다. 愚俗에 그것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약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蘇合元<sup>17)</sup>의 재료는 먼 곳의 물건이고 희귀한 물품이 아닌 것이 없으니 약시장의 약은 대부분이 가짜다. 이 物을 복용할 경우 매번 입에서 뻑뻑한 침이 생기고 누린내가 나 오히려 胃를 거슬리니 어찌 滯한 것이 뚫리기를 바라겠는가. 음식에 상했을 때는 生薑, 草果<sup>18)</sup>, 藿香<sup>19)</sup>, 木香<sup>20)</sup>, 山查<sup>21)</sup>, 枳實<sup>22)</sup>을 먹는 것만 같지 못하다(蘇元丸은 집에서 만든 것이 최상품이다).

10) 정기가 허하고 속이 찬 증상이 겹쳐 나타나는 것.

11) 배가 아프고 속이 켤기면서 뒤가 목직하며 곱이나 피고름이 섞인 대변을 자주 누는 병증이다.

12) 뒤가 목직한 증상. 이질의 중요한 증상의 하나이다.

13) 풍한에 상한에다 음식을 잘못먹고 체하여 오슬오슬 춥다가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고 명치 아래가 그윽하며 배가 아프고 게우며 배에서 소리가 나고 설하는데 쓴다.

14) 不要免…….

15) 여름철 무더울 때 더위를 받아 생긴 중한 병증. 중서라고도 한다.

16) 1) 원기가 왕성한 것. 2) 병적으로 기가 성해진 것. 3) 사기가 실하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여기서는 2)와 3)의 뜻으로 쓰였다.

17) 蘇合香은 조록나무과에 속하는 사철푸른 키나무인 소합향나무(Liquidambar orientalis Mill.)의 진을 모은 것이다.

18) 생강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인 초과의 익은 열매를 말린 것이다. 맛은 맵고 성질을 따뜻하다. 비경, 위경에 작용한다. 비위가 허한하여 배가 아픈데, 소화장애, 게우기, 기허 및 한습 설사, 학질 등에 쓴다.

19) 꿀풀과에 속하는 방아풀과 광곽향의 웅근풀을 말린 것이다.

20)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인 목향의 뿌리를 말린 것이다.

21) 배나무과에 속하는 잎지는 작은 키나무인 찔방이나무의 익은 열매를 말린 것이다. 찔방이라고도 한다.

22) 산초과에 속하는 잎 지는 떨기나무인 탕자나무의 선열매를 말린 것이다.

몇해전에 提川에 韓生員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역질을 없애고 학질<sup>23)</sup>을 제거하는 데 능했다. 그 법은 먼저 生年을 묻고 다음에는 병에 걸린 날을 묻는데 그 후 나온 하나의 方은 반드시 30여가지 가량의 약재(味)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다. 작게는 20여 종류의 약재를 사용하는데, 溫한 것, 涼한 것 補하게 하는 것 瀉하게 하는 것이 섞여서 갖춘 것이다. 매회 한 劑를 복용하면 병이 백발백중 나아버려 성명이 널리 알려졌다. 나는 그때마다 그것을 비웃어 魔道라고 여겼다. 어느날 크게 추위를 만나 떨리고 열이 나게 되었다. 그 증상이 매우 사나웠다. 韓陽智어른(諱는 光傳)이 와서 내 병을 보고 억지로 권하여 마침내 체천공을 보았다. 그는 나에게 年日을 묻고 나서 침을 뽑아 머리 여러 곳에 침을 놓고 한 方을 내놓았다. 韓公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떠나면 그대는 먹지 않을 것이라” 하고 앉아서 그것을 다려 내게 권하였다. 그래서 나는 한 劑를 억지로 먹었다. 그러니 과연 神効가 있어 병이 씻은 듯이 나온지라, 다음날 빗질하고 세수하고 예를 다해서 韓公에게 가서 사의를 표했다. 천하의 일은 과연 다 알 수 없는 것이리라.

세상에서는 瓊玉膏를 나이를 채우고 수명을 늘이는 仙方으로 생각하였다 ……<sup>24)</sup>

#### 雜說四.

痘家에서는 두더지를 사용한다(또는 犂鼠, 撥地猴). [병에 걸린] 초에 열이 날 때, 농축될 때까지 다려서(창자를 제거한다) 그 즙을 취해 복용하면 크게 길하다. 대체로 마마가 잘 낫지 않는 이유는 그 독이 皮肉을 뚫을 수 없기 때문이다. 皮肉은 土이고, 두더지는 땅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性味는 능히 산이나 감옷을 뚫는 것처럼 肌肉을 뚫을 수 있다. 麝香의 부류도 역시 능히 뚫을 수 있는데 이것 모두는 眞氣를 흠뜨려 놓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 두더지는 補하는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痘와 서로 잘 맞는다(두더지는 胃氣를 補해준다).

立春에 달걀 여러개를 糞에 빠뜨려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어둔 다음 雨水에 꺼내어 어린이의 나이에 따라 1, 2, 3개를 주어 먹이면 역시 마마독(痘毒)을 미리 흠뜨릴 수 있다. 대개 마마의 독은 태아때부터 있는 독이다(胎元之毒). 달걀을 분에 빠뜨려 [분이] 스며들면 그 본성이 바뀌니 역시 胎元의 해독의 뜻이 있다. 고로 더욱 유익하게 된다.

種痘法을 널리 행하게 하여 아무 일도 없도록 해야한다.

漆瘡<sup>25)</sup>에는 清蘇油를 취한다. 一勺을 酒와 조절하여 복용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목격한 바이다.

#### 雜說五.

芝峯이 말하기를 “浮腫<sup>26)</sup>에는 清蘇油(즉 法油)의 오래된 것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복용하다 심한 설사를 하여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 延壽書에는 “病人에게는 오래묵은 기름과 음식은 마땅하지 않는데, 하물며 많이 복용할 수 있겠는가?”<sup>27)</sup>는 말이 있

23) 학질은 일정한 사이를 두고 오한전름과 발열이 엇바뀌면서 주기적으로 발작하는 병증을 말한다. 주로 무덤고 습한 여름과 초가을에 풀과 숲이 무성하고 습한 지대에서 잘 생긴다.

24) 生地黃을 모르지만 …….

25) 옷독에 의하여 생기는 피부병, 소종해독, 리습하는 방법으로 은교산이나 룡담사간탕을 가감하여 쓴다. 붉기, 붓기가 심한 데는 생지황, 지치, 띠뿌리, 꼭두서니 등을 더 넣는다.

26) 몸이 붓는증. 몸안에 체액이 머물러 있어 얼굴, 팔다리, 가슴과 배, 심하면 온몸이 붓는 병증을 말한다.

다.

髮際<sup>28)</sup>癰과 여러 癰毒이 생겨나려 하면 사슴뿔을 불에 구워서 다려서 뽕죽하게 하면 역시 없어지고 낫는다. 또한 腦疽<sup>29)</sup>와 髮際疽<sup>30)</sup>가 처음에 통증이 생길 때 臭蟲(속명 奴略伊)<sup>31)</sup> 10여 개와 麻油(속명 眞油<sup>32)</sup>)를 섞어 갈아서 만든 즙을 그 위에 바르면(그것을 붙인다) 고통이 가라앉게 되고, 붉은 기운들이 하나로 수렴되어서 양일만에 낫는다(發背<sup>33)</sup>에도 효과가 있다) ……<sup>34)</sup>

#### 雜說六.

“咽喉가 종기의 통증으로 막혔을 때는 박꽃 위를 나는 나방을 태워 분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咽中으로 흡입한다. 혹자는 나방중에는 龍腦<sup>35)</sup>의 냄새가 있는 것이 효과가 있어, 대체로 기운을 흠뜨릴 수 있다”고 한다.

흰 사마귀는 콩만한 크기로 얼굴이나 혹은 손 다리에서 난다.俗에서는 이것을 물 사마귀라고 한다. 화살대를 4, 5枚 크기로 잘라 취해서 붓의 자루처럼 만든다. 그리고 그 한쪽에 불을 붙이면 연기가 위쪽 구멍으로 나온다. 가령 빛나고 윤기가 있는 그릇을 사용하여 그것을 받는데, 연기가 액체처럼 응결되어 나타나기를 기다려서 그 액을 취해 문지른다. 하루에 여러번 하면 불과 7, 8일만에 물 사마귀는 스스로 떨어지니 그 효험이 신과 같다. (먼저 침을 사용하여 사마귀의 끝을 깎아 비벼서 제거하고, 다음에 연기액을 그 위에 문지르면 더 빠르게 없앨 수 있다).

水疱疔<sup>36)</sup>은 먼저 밀가루 떡을 만들어 그것으로 환부를 둘러싼다. 그후에 달걀 흰자위로 가득 채워 수포청의 윗부분을 덮을 정도로 채운다. 數時(혹 數刻)에 이르도록 기다려서 가는 홍색 선이 미미하게 射出하면 다시 다른 달걀 흰자를 사용하여 채운다. 만약 紅線이 없어지게 되면 곧 다 나은 것이다.

#### 雜說七.

“古方은 모두 간단하여 血〔을 보하는 데〕에는 四物湯<sup>37)</sup>을 주로 하고 氣〔를 보하는 데〕에는

27) (俗言)浮腫(人)服年久法油最有効 然人或服之而洞泄而死 延壽書曰病人不宜陳油飲食況可多(服哉).

( )된 부분은 「지봉유설」에는 있으나 「의령」에는 빠진 부분. 丁若鏞은 「지봉유설」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편집을 하였는데 ㄱ 부분도 있고 새로 첨가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 ( )는 「의령」에서 빠진 부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다.

28) 머리털이 난 곳과 나지 않은 곳의 경계부위를 말한다.

29) 저의 하나. 목덜미의 털 난 경계부위에 생긴 저를 말한다.

30) 피부와 털 난 부위와 경계에 생긴 저. 주로 목덜미의 피부와 털난 부위의 경계에 생긴다.

31) 노래이, 노래기. 배각류에 속하는 절지동물의 총칭.

32) 「雅言覺非」를 보면 “胡麻者苴藤也 東人名之曰眞荏”, 그 다음에 細注로 “其油曰眞油”라 되어 있다.

胡麻는 참깨이며, 眞油는 참기름이다.

33) 발저의 하나. 등에 생긴 발저를 통털어 말한다.

34) …… 其產如達神効.

35) 용뇌. 용뇌향과에 속하는 용뇌향(*Dryobalanops aromarica* Gaertner. f 또는 *D. camphora* Colebr)의 진 또는 줄기나 가지를 잘라서 수증기증류하여 얻은 액을 식힐 때 생긴 덩어리를 모아 그늘에서 말린 것이다.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약간 차다.

36) 1) 수두, 2) 살갓과 점막에 생긴 물집.

37) 전지황. 집합박꽃뿌리, 궁궁이, 당귀 각각 5(보감). 혈허증과 혈병에 두루 쓴다. 달거리장애, 불임증,

四君子湯<sup>38)</sup>을 주로 하고 痰〔을 치료하는 데〕에는 二陣湯<sup>39)</sup>을 주로 하였다. 점점 새로운 처방이 보태어지고 증가되어〔처방이〕 많아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증세에 따라 복잡하게 치료하게 되니 도리어 그 원래의 근본이 상하게 되었다. 鄉村에서는 한가지 약재를 주로 사용하여 왕왕 효험이 높은데〔이것은〕 약의 효력이 집중되었기〔때문이다〕. 근자에 百合의 일종이 있어 그 꽃의 색은 백색이고 모양은 작은 항아리와 같았다. 여름 가뭄때 왕성한데 醫者가 咽病에 사용하여 효과를 본 경우가 있다.”<sup>40)</sup> (古方에서는 百合을 丘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喉病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sup>41)</sup> 모든 약이 효력이 없고, 黃連丸만을 복용한다 ……<sup>42)</sup> 丁卯 여름에 마침 폐담이 있어서 꿀꺽질 여러 조각을 씹어 내렸더니 肺氣가 소통하였다. 드디어 한량을〔씹었더니〕 宿暑가 갑자기 없어져서 뜨거운 것을 마셔도 해가 없었다. 그 까닭을 알지 못했으나 그 후 우연히 「說郛」를 보니 “宿暑에는 꿀꺽질이 아니면 공략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오, 고인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구나! 오, 어찌 茯苓을 九泉에서 일으켜 세워서 이 일을 말하게 할 수 있겠는가! 「本草」를 두루 읽었지만 꿀꺽질이 더위를 치료한다는 문장은 없었다.

내 나이는 아직 50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치통이 있다. 甘物을 먹을 때 마다 반드시 발생하는 데 벌레(蟲)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바람에 맞으면 다시 심하게 되는데〔이것은〕 풍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巴豆<sup>43)</sup>와 川椒을 사용하면 더욱 심해지는데 이것은 열때문이다. 파와 마늘 등을 익혀서 입에 머금으면 더욱 심하게 되는데 이것도 열때문이다. 이때 황연<sup>44)</sup>을 씹어서 머금어서 하룻밤을 보내면 낫는데 그 효과가 신묘하다. 대체로 황연은 열을 치료하고 충치도 치료한다. 그래서 寒痛에 이것을 쓸 수 없다.

#### 雜說八.

한 농부가 있었는데 나이는 60으로 즐겨 白酒를 마시다가 4월말에 血痢<sup>45)</sup>를 앓아 하루에도 5, 60 차례〔설사를〕 하였는데 모든 약이 소용없었다. 鮎魚(머어기) 한접시를 먹고 문득 나았다. 이 일 이전에 한 부인이 효력을 보았다. 부인이 그 병을 얻었는데 良醫가 말하기를<sup>46)</sup> …… 腎이

쟁년기장애, 식물신경부조화증, 몸풀기 전과 몸푼 뒤에 생긴 병 등에 쓸 수 있다.

38) 1) 인삼, 흰삼주, 흰솔풍령, 구감초 각각 5(보감). 진기가 부족하여 얼굴색이 희고 온몸이 노근하며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되며 자주 설하는 데 쓴다.

39) 끼무릇 8, 꿀꺽질, 벌건솔풍령 각각 4, 구감초 2, 생강 3쪽(보감). 담음으로 가슴과 명치밀이 그득하고 불어나며 기침을 하고 가래가 많으며 메스껍고 때로 게우며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쓴다.

40) 이 부분은 「성호사설」에서 보인다. 중간 중간 원문을 생략해서 편집한 것을 알 수 있다. ( )로 된 부분은 원문에서 생략된 부분이다. 古(初之)方皆簡 血主四物 氣主四君子 痰主二陣 漸益添增 逾多(而)逾亂 (醫家宜先知此義 方有可據 診證雖得病久則病亂) 隨證雜治 反傷原本 (何以責効如) 鄉村(絕無醫術只聞某物之治某病) 單科專攻 往往多驗 ……

41) 又治 …… 戶而宿.

42) 乍滅旋增薑椒之屬不(한 자 缺) 近口. 이구절은 해석이 되지 않음.

43) 버들웃과에 속하는 사철푸른키나무인 파두나무(*Croton tiglium* L.)의 여문씨를 말린 것이다.

44) 1) 매자나무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인 산련풀(*Jeffersonia dubia* (Maxim.) Benth. et Hook f.)의 뿌리줄기를 말린 것이다. 2) 바구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인 천황련(*Coptis chinensis* Franch.)과 같은 속(*coptis* sp.) 식물의 뿌리줄기를 말린 것이다.

45) 이질의 하나. 피가 섞인 대변을 누거나 순 피만 누는 이질을 말한다.

46) 이 구절의 원문은 “前此一婦人得効 嬪人得之良醫云”으로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

虛하여 허리가 아픈 데에 宋誼叔은 杜仲<sup>47)</sup> 술을 浸透시킨 후 건조시켜<sup>48)</sup> 찢어서 채를 쳐서 가루로 만들고 재가 없게 하여 3번 복용하였더니 나왔다.

出張記.<sup>49)</sup>

乳孀가 있어, 냉한 고기를 먹어 心脾에 통증이 생겨 견딜 수 없었다. 목은 茱萸 五六으로 ...<sup>50)</sup> 爛漫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젖이 가는 길로 어린애한테 약을 먹인다고 유모로 하여금 젖 아래를 움켜쥐도록 한다. 그 뜻은 藥汁이 배에 이르지 않고 젖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무릇 사람의 목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먼저 胃로 들어가고 脾로 전달되어 소화되어 液이 된다. 그 후 [이 液은] 血이 되고 液이 되고 젖이 되는데 어찌 바로 목을 지나 젖에 이르게 될 수 있겠는가. 몸 아래쪽의 약(下部之藥)을 써서 복용하게 하는 것은 특히 우스운 일이다. 오로지 목구멍의 약을 한번 머금어 삼킨다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서 좋아지게 될 것이니 이것이 外治의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처럼 鍾은 작고 碗(주발)이 큰 것은 잘못이다. 10종이 一碗이 된다. 그러나 일찌기 의서를 보니 자원을 종안에 넣게 함이 있는데, 어찌 종이 크고 완이 작은 것이 아니겠는가? 완은 작은 사발(盂)인데, 사발은 음식 그릇이다. 그리고 碗은 음식 그릇중 작은 것을 말한다. 이처럼 중국 문자를 보고 쉽게 우리 풍속으로 풀어 인식하는 종류가 매우 많다.

製附子法.<sup>51)</sup>

附子 一枚를 먼저 감초 다섯 돈을 사용하여 좁은 그릇 안에(좁은 그릇이라면 적은 양이라도 모두 잠기기 때문) 다려서 농축시켜서 하룻밤을 침전시킨 다음, 예리하고 부드럽게 된 곳을 취한다. 그 아래쪽을 취하여 부수어 네瓣을 만든다. 또 하루를 묵힌 다음(끝의 연한 부분은 그 좁이 이미 침투하였기 때문) 꺼내어 건조한 곳에 두어 물기가 수렴되는 것을 기다려 껍질을 벗긴다.<sup>52)</sup>

다시 감초 다섯 돈을 사용하여 앞과 같이 질게 다린다. 다섯 조각을 취하여 하룻밤을 침전시킨 다음 그것을 꺼내어 말리는데 물기가 점점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 바람을 쐬어 燥濕이 서로 반이 될 때까지 말린다. 그것을 조금 찍어서 맛을 보는데, 만약 아직도 크게 맵고 입을 찌르면 약한 불로 볶은 다음 그것을 사용하고, 만약 약간 매워 겨우 입술을 부르뜨게 할까 말까 한 것은 .....<sup>53)</sup> 다시 그것을 침전시키니 어찌 그것을 버리겠는가.

附子를 약에 넣는 경우 반드시 그 맛을 자세히 보아 매운 맛이 厚한 것은 3, 5, 7分을 사용하면

47) 杜仲나무의 껍질을 말린 것으로 맛은 맵고 달며 성질을 따듯하다.

48) 酒浸. 酒製의 하나. 동약재를 술에 담그는 것을 말한다. 동약재를 일정한 시간 담그되 약재 속까지 배도록 담가두었다가 꺼내서 약간 누기가 있을 정도로 말리어 쓴다.

49) 이 구절도 해석이 되지 않는다.

50) .....間.

51) 바구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인 부자(Aconitum carmichaeli Debx)의 덩이뿌리(새끼뿌리)를 말린 것이다. 각지에서 심는다. 여름에 부지의 덩이뿌리를 캐서 물에 씻어 해벌에 말린다. 부자는 독성이 세므로 반드시 법제하여 쓴다. 부자를 물에 담가 마비감이 없어질 때까지 우려서 검은콩과 감초 달인물에 넣고 속이 익을 때까지 끓여 말린다.

52) (甘草水葉之).

53) ..... 乃要殺也.

역시 그 효과를 취할 수 있고, 매운 맛이 薄한 것은 1, 2, 3돈을 사용하면 된다. 만약 매운 맛이 없어 문드러지게 씹어도 잇몸을 놀라게 하고 부러트지 않게 하는 것은 한량을 복용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附子の 찌꺼기를 복용했을 따름이다. 때문에 附子 만드는 법은 精密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너무 날 것이나 강한 것은 펄펄 끓이기 이전에 맛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삼키게 되어서는 독성이 나타나 해가 작지 않을 것이니, 입으로는 침을 토하고(口吐涎水) 머리와 눈은 어지럽고 흐릿하게 되어(頭目眩暈) 점점 약창의 독이 생기게 되니 이것은 삼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集古一.

辛稼軒이 처음에 북방에서 朝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建康하였는데 문독 癰疽<sup>54)</sup>라는 병에 걸렸다. [그 증상] 심해져서 마침내 그 크기가 술잔 크기만 해졌다. 도인이 있어 葉珠(의인)<sup>55)</sup>를 복용하라고 가르쳐 주어서 東壁土<sup>56)</sup>를 사용하여 볶았다. 황색이 된 후에 물로 푹 끓여서, 砂盆속에 넣고 갈아 고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매회 無灰酒<sup>57)</sup>로 두 돈을 조제하여 복용하니 疔瘻이 사라졌다. 沙隨선생은 만년에 역시 이 병을 얻었는데 辛이 친히 이 방을 주어 그것을 복용하니 나왔다. (...) ...<sup>58)</sup>

宋高宗이 설사를 하였다. 醫인 王繼先이 오이를 내려주기를 청하여 그것을 먹도록 했다 .....<sup>59)</sup>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가?” 繼先이 대답하기를 “臣이 오이를 찾고서 장차 폐하게 여쭙겠습니다.” 오이를 진상하라고 詔를 내려 그것을 먹으니 설사에 매우 적합하여 곧 그쳤다(葉紹翁「四朝聞見錄」).

御藥을 복용하는데 火기운의 약(火藥)이 숨겨져 있는 것이 많아 머리뒤에 瘡이 생겨 열기가 점점 위로 타오르니 한 도인이 風市穴<sup>60)</sup>에 열 몇 壯 땀을 뜨라고 가르쳐주었다. 비록 낫더라도 때때로 재발하는데 이때는 陰煉秋石에 大豆를 한주먹 진하게 다려 탕을 만들어 쓰면 마침내 그 음양이 평화롭게 된다(「王翬雜錄」).<sup>61)</sup>

54) 1) 음낭이 불어나 커진 병증. 2) 아랫배가 켕기고 아프며 고환이 당기는 병증이다.

55) 벼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인 울무(Coix lachryma-jabi L. var frumentacea Makino)의 여문 씨를 말린 것이다(위의 책, 1156쪽).

56) 성이 평온하고 무독하니 탈항과 온역과 설리와 작난을 주치한다(본초). 동쪽 벽이 항상 먼저 아침 햇빛을 받아서 데이는데 해란 것은 양의 진화이며 화가 날 때에 그 기가 장하므로 남벽을 취하지 않고 동벽을 취하되 가장 일광을 먼저 받은 곳의 흙을 굽어서 쓰는 것이다(본초). 다년간 연기에 그을린 것이 더욱 좋다(입문) (「동의보감」).

57) 석회를 조금도 넣지 않은 술. 옛날에는 술이 시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술에 석회를 조금 넣었는데 이런 술을 마시면 담이 물린다고 하여 병치료에 쓰는 술은 반드시 무회주를 썼다고 한다.

58) (城鄙人患不能葉珠只於 ...) ... 去矣.

59) 上覺其(두 자 缺)問.

60) 족소양담경의 혈. 슬관절의 가로간 금에서 7치 올라가 다리 바깥쪽부터 아래 차렷자세를 취할 때에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곳에서 잡기도 한다. 여기서는 풍시혈이 아니고 풍지혈이어야 한다. 열을 내릴 때는 다리에 있는 풍시혈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머리 뒤에 있고, 열을 내리는 데 대단히 효과가 좋은 풍지혈을 사용해야 한다. 風池穴은 족소양담경에 속한다. 족소양, 수소양, 양위맥의 교회혈이다. 뒷머리뼈의 아래, 젖도드리의 뒤, 고깔산바깥쪽과의 사이에 생긴 우묵한 곳이다.

61) 王翬은 송나라 사람. 자는 定國, 호는 淸虛先生. 蘇軾과 교제. 벼슬은 宋正丞. 저서에는 「甲申雜記」, 「聞見近錄」, 「隨手雜錄」 등이 있다(「大漢和辭典」 7권, 826쪽). 「왕공잡록」은 「수수잡록」을 말하는 것 같다.

## 集古二.

무소뿔(犀)<sup>62)</sup>을 잘게 쥘기는 힘들다. 부스러기를 깎아 다른 약재중에 넣어 쥘고 난 뒤에도 다른 약재는 체에 다 통과하는데 무소뿔만 남는다. 醫僧 元達이란 사람은 무소뿔을 쪼개 사방 1치반 가량의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 매우 얇은 종이로 싸고 가슴에 품고 이것을 피부에 가까이 닿게 함으로써 사람의 따뜻한 기운으로 데웠다. 그 기운이 훈훈해져 열기가 실렸는가를 살펴서 절구에 넣고 급히 쥘으니 손에 만져지는 것이 가루와 같았다. 이로 인해 사람의 기운으로 무소뿔을 가루로 만들수 있음을 알겠다.

麥門冬<sup>63)</sup>의 씨를 제거하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거품이 생길 정도로 조금만 끓이면 쉽게 제거되었다. 지금은 단지 불위에 銀石남비에다 이것을 약간 지지면 손이 가는 대로 쉽게 벗겨지니 힘쓰기가 극히 쉽다. 또한 물에 담가 끓이지 않으면 약의 효력(藥味)이 없어진다.

乳香<sup>64)</sup>과 沒藥<sup>65)</sup>은 가장 갈기 어렵다. 만약 元子를 만들려면 乳鉢으로 대략 가늘게 갈고 다시 술이나 물에 넣어서 갈면 얼마되지 않아 진흙같이 되어 다시는 찌꺼기가 없다……<sup>66)</sup> 매우 정성이 들어가게 된다. 만일 酒糊元같이 만들려면 술에 넣어서 갈고 면과 같이 하고자 하면 물에 넣어 가는데, 매우 힘도 절약되고 또한 갈려진 가루 등도 날리지 않는다.

## 集古三.

夷堅志<sup>67)</sup>에 말하기를 “虞雍公이 길에서 더위를 맞아 질환을 얻었는데 설사를 여러달 동안 했다. 9월 9일에 꿈속에서 神方을 얻어 그것대로 복용하였더니 마침내 나았다.” 그 詞에 말하기를 “暑毒은 脾臟에 있고 습기는 다리에 이어지는데 배설을 하지 않으면 이질이 되고 설사를 하지 않으면 학질이 된다. 雄黃 하나만을 달구어서 약과 함께 떡을 찌고, 감초로 탕을 만들어 이들을 복용하면 안락하게 된다”고 했다.

張世南<sup>68)</sup>이 말하기를 “丹經에서 말하길 龍을 붙잡을 수 있고 雄을 숨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雄黃<sup>69)</sup>이 불을 보면 날아가 버리니 최고로 다루기 힘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青城山의 道友의 법에는 “雄黃을 사용하는데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잘게 갈아서 甘鍋불 속에서 데워서 모조리 붉은 색이 되도록 하여 그것을 취하는데 꺼낸 甕황의 분말을 엄초 안에 넣고 급히

62) 무소과에 속하는 무소(*Rhinoceros sp.*)의 뿔이다. 맛은 쓰고 시고 싸며 성질은 차다. 심경, 간경, 위경에 작용한다. 열을 내리우고 혈분의 열을 없애며 정신을 진정시키고 독을 푼다.

63) 나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인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과 좁은입맥문동(*Ophiopogon japonicus* Ker-Gawl.)의 덩이뿌리를 말린 것이다.

64) 윣나무과에 속하는 사철푸른 떨기나무인 윣향나무의 진을 말린 것이다.

65) 감람과에 속하는 몰약나무와 몰약나무속 식물의 진을 말린 것이다.

66) 若酒糊元則入酒研若以麵則入水研. 이부분은 해석이 되지 않는다.

67) 夷堅志, 書名. 五十卷. 洪邁撰. 神怪仙鬼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기록한 책(『大漢和辭典』 3권, 561쪽).

68) 張世南, 宋鄱陽人. 字는 光叔. 일찍이 永福에서 관리를 지냈다. 저서로는 遊官紀聞이 있다(『大漢和辭典』 4권, 749쪽).

69) 性이 平寒하고 맛이 甘苦하고 독성이 있다. 中惡, 腹痛, 鬼擊를 다스리고 精物과 惡邪한 기를 물리치고…… 甕황을 차면 귀신이 범하지 못하고 산림에 들어다면 虎狼이 降伏하고 강하를 건너면 오물이 상하지 못한다. 순하고 잡물이 없으며 돌이 섞이지 않고 계관처럼 붉고 광명한 것을 쓰고 또 협충을 죽이는 것이 진품이다. 정명한 것이 甕황이요, 밖이 검은 것이 훈황이니 창개에 쓴다(본초). 산의 양에 나는 웅이 되고, 산의 음에 나는 것이 자 되니 계관처럼 붉고 명철한 것이 좋으니 세련하고 수비하여 쓴다(입문).

복숭아가지를 사용하여 저으면 곧 물과 같이 된다. 그것을 급히 기울여 꺼내서 사기 접시내 놓고 그 접시를 약간 한쪽으로 기울이면 맑은 것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그것이〕 옹고 되기를 기다려 조악한 것은 없애고 다시 잘게 갈아 밤새워 썰서 菡豆만 한 크기로 元이 되도록 하고 매번 三元에서 七元을 앞의 법과 같이 복용하며 雄黃분말 한 량을 복용할 때 焰硝 한 돈을 사용한다”고 했다.

코아래 입위를 일러 人中이라하는데 趙孟頫는 “人中 위에는 眼, 耳, 鼻로 모두 구멍이 두개씩 있으며 人中 아래는 입과 二便이 있는데 모두 구멍이 하나이다. 三획을 그으면 泰卦가 된다”<sup>70)</sup>고 하였다. 王弼州는 “부인은 젖이 둘이 있는데 어찌 구멍이 하나인가”라 했고, 혹자는 “사람 몸에는 총 12개의 구멍이 있어서 人中 위에 6개가 있는데 귀와 눈과 코가 그것이다. 人中 아래에도 역시 6개가 있는데 입과 젖 배꼽 二陰을 가르킨다. 때문에〔코와 입사이를〕 人中이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이 이야기는 그럴듯하다.

#### 集古四.

…… (芝峰類說).

元斗杓가 설사를 앓았는데 방도가 없어 尹孤山(諱 善道)에게 약을 물었다. 孤山은 차가운 것을 양껏 마시면 그 설사가 그친다고 했다.〔이때 元斗杓의〕 子弟가 말하기를 “그는 항상 우리 가문에 禍를 입히려고 했기 때문에〔그대로 하면〕 질병이 더욱 심하게 될 뿐입니다”고 했다.〔이에〕 斗杓는 밤에 몰래 우물로 나아가 그 물을 진탕 마셨더니 병이 나았다. 子弟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斗杓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가 나에게 화를 입히려 했어도 어찌 약으로서 나를 죽이겠는가. 내 어린시절부터 여러차례 여름 설사로 고생하였는데 그때마다 냉수를 먹고 나았는데 이 처방을 사람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 역시 효과가 없는 자가 없었다”고 했다.

盧慶麟이 鐵液을 복용하였는데 해가 지나서 정신이 아득해져서 마침내 죽었다. 俞大禎은 松脂(소나무 기름, 송진)를 수년동안 복용하였고 宋寅 李海壽는 何首烏<sup>71)</sup>를 항상 복용하였고 宋英耆는 松葉을 복용하였는데 모두 악창이 발생하여 죽었다. 어떤 것들은 약으로 복용할 때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sup>72)</sup>

#### 集古五.

鄭協은 어려서 心熱<sup>73)</sup>을 앓았다. 輪回酒(自己尿)를 복용하니 크게 효과가 있었다. 止善 郭學은 수년동안 복용하였는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죽었다(李挺이 말하기를 “脾胃가 虛하고 血氣가 약한 경우 보약중에 이것을 일정양 넣어야 한다”고 했다).<sup>74)</sup>

70) 地天泰卦는 위에 음효가 세개, 아래 양효가 세개로 조맹부가 말하는 것처럼 위에 음효는 구멍 두개인 눈, 귀, 코를 상징하며 양효는 구멍 하나인 입과 기를 상징한다.

71)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만초. 뿌리는 강장제로 쓰인다. 새박당굴, 박주가리로 불린다.

72) 이부분도 「지봉유설」에 나온다. 盧(斯文)慶麟服鐵液 踰年精神 耗乃死 俞(參判)大禎服松脂累年 (礪城尉)宋寅李海壽商服何首烏 宋(同知)英耆服松葉皆疽發而殂服藥者宜戒(124).

73) 심에 생긴 여러가지 열증. 심기나 심화가 왕성해서 생긴다. 얼굴이 벌겋고 가슴 속에 번열이 나며 잠잘 때 불안해하고 이를 갈며 때로 헛소리를 하고 계속 웃으며 갈증이 있고 피를 게우거나 코피가 나며 오줌이 누르고 설질이 붉다. 성질이 찬약을 써서 심열을 내리우는 방법으로 오덕탕 서각지황탕 등을 쓴다.

74) 「芝峰類說」. 鄭(同知)協, 少時患心熱喫輪回酒, 大有効. 郭(正郎)止善學服數年不効, 而(遽)殞. (按

芝峯이 말하기를 “元鐸은 어렸을때 고래기름(鯨油)으로 책을 읽었는데 눈병을 앓아 사물을 보지 못했다. 醫의 말대로 3년동안 눈을 닫으니 완쾌되었다.”<sup>75)</sup>

海西에 蝦鹽을 마시고 복통을 심하게 앓은 사람이 있었다. 중독된 것을 알아 燒酒를 많이 마셔 먹었던 鹽物을 토하니 蠢動하여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고 그 병이 마침내 나았다. 본초에 말하기를 ……<sup>76)</sup>

集古六.

……<sup>77)</sup> 또 白礬<sup>78)</sup>을 사용하여 細茶로 나누어 분말을 만들고, 매 다섯 돈을 샘물로 조절하면 기괴한 것을 토하는 것이 멈춘다. [이것은] 혹 다리가 여덟개 날개가 여섯개로 올챙이와 같은데 베어도 절단되지 않고, 태워도 타지 않는데, 백반을 사용하여 끓여버리면 죽일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때를 보아서 살아서 그 집으로 돌아온다. 또 말하기를 古方에서 白囊荷를 취하여 그 즙을 복용하고 그 뿌리와 같이 누우면 그 공력이 누그러진다고 하였다(鄭湛若著名露).

芝蜂이 말하기를 “호랑이가 독화살에 맞으면 淸泥를 먹여 그 독을 풀고, 멧돼지가 독화살을 맞으면 냉이가 우거진 곳으로 몰고 가서 그것을 먹게 한다. 매한테 상처를 받은 꿩은 地黃의 잎을 씹어 바른다(朝野僉載). 쥐가 중독되어 취한 것과 같으면 鰍(泥汁)을 마시게 한다. 쥐새끼가 뱀에게 물리면 어미에게 콩잎을 물려서 그것을 씹게 하고, 그 새끼에게 불이도록 하면 모두 산다(北夢鎖言<sup>79)</sup>). 꿩과 秀魚가 상처를 입으면 상처난 곳에 송진을 바른다”<sup>80)</sup> 고 했다.

「說郛」에 말하기를, “木瓜<sup>81)</sup>의 재와 麥糠飯을 섞어 물에 던지면 물고기가 그것을 먹고 죽는다. 산초나무의 분말을 稻飯과 함께 섞어 참새에게 먹이면 죽는다. 지금 산초나무 껍데기를 물에 침투시켜 상류에서 뿌리면 물고기는 모두 죽어 떠오르게 된다. 藍漆과 飯을 섞어 함께 놓으면 파리가 그것을 먹고 죽는다”<sup>82)</sup> 고 했다.

集古七.

옛날에 한 村民이 있어 風疾에 걸려 문밖에 나올 수 없었다. 癸巳년<sup>83)</sup>에 전쟁과 기근으로 兎絲子<sup>84)</sup> 수십말을 거두어서 밥을 지어 항상 먹었는데, 오래된 질병이 곧 낫게 되고 氣力이 왕성

醫學入門)曰：脾胃虛及血氣藥者，必補藥中量入。(以降火云恐不可一概言也)(124). 「의령」에는 入門曰로 시작하는 細注로 나와 있다.

75) 「지봉유설」.

76) 周禮以 ……

77) …… 薺爲丸.

78) 명반석을 정제하여 만든 것이다. 맛은 시고 떫으며 성질은 차다.

79) 朝野僉載는 「지봉유설」의 문장 맨 처음에 나오고 北夢瑣言도 「의령」의 朝野僉載가 있는 부분에 “須臾平復 北夢瑣言”로 나온다. 그리고 「의령」에 북봉채언이 나오는 부분에 “又有人言嘗”이 있다. 그런데 정약용은 각 말에 대해 출처를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마지막 인용출처는 쓰지 못하고 있다.

80) 「지봉유설」. 위에서 말한 차이 이외에 ‘脚’이 ‘銜’으로 바뀌었다.

81) 배나무과에 속하는 명자나무와 모과나무의 익은 열매를 말린 것이다.

82) 「지봉유설」. 說郛云(以)木瓜灰和麥糠飯投水中漁食之則死 奏椒爲末和稻飯雀食之則死 今(人以)椒(木)皮和(「의령」에는 ‘和’ 대신 ‘浸’으로 나와 있다)水上流則漁皆死而浮出鹽漆和飯子食之則死(桂皮着樹則樹則枯死云).

83) 만력 21년 1593년 우리나라 선조 26년.

해졌다. 또 한 사람은 兎絲子를 조금 복용하고 음식은 배로 먹었는데, 氣血이 充盛해졌으나 문득 도리어 등에 疽가 생기니, 金銀花<sup>85)</sup> 즙을 數斤에 이르도록 이틀간에 먹으니 종기가 없어지더라.<sup>86)</sup>

古詩에 말하기를 “위로는 백척이나 되는 실이 있고, 아래로 천세나 되는 쥘이 있다……<sup>87)</sup> 늙은 뽕나무를 모두 베어 棺板을 만들어 권세와 부귀에 응하니, 기탁했던 생이 마침내 끊어졌도다”라 했다.

補骨脂(즉 破古紙)는 일명 胡韭子이다. 輿地勝覽에는 강원도 翁谷등지에서 역시 이것이 난다 하는데〔補骨脂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라.

集古八.

옛말에 雨前茶라는 것을 일컫기를 대개 穀雨前(또는 雨水前)에 처음 나온 어린 잎을 가지고 으뜸을 삼았다. 李齊賢의 시에 “그 향이 청량한 것은 火前에 따서 그렇다”라 했다. 火前이란 寒食에 따서 미리 만들어 놓아서 불을 금하는 것이다. 新羅興德王때 사신이 당나라에서 차의 씨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왕은 이것을 지리산에 심으라고 명하였다. 지금 남방의 여러 군에서 나는 차는 그때 심은 것이다.<sup>88)</sup>

「淮南子」에 “天雄을 먹으면 武勇이 생긴다”는 구절이 있다. 本草에는 “산새와 닭의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용맹하고 건강하게 된다”는 구절이 있다. 倭奴는 전쟁에 임하면 술을 먹는데 이것으로 담력을 키운다. 許儀는 후에 “일본의 병사들은 술을 먹여 담을 키운다”고 했는데 이를 일컫는다.<sup>89)</sup>

辛夷花는 일명 迎春花요 일명 木筆花인데 이른 봄에 먼저 꽃이 나와 봄을 맞이 한다는 뜻이 있다. 꽃의 모양은 붓의 머리와 같아 木筆의 狀이 있다. 또 한 종류는 봄에 일찍 꽃을 피우는데 꽃의 색은 노란색으로 사랑스럽다. 세속에서 개나리(介辣伊)<sup>90)</sup>라 이름지었다. 李德懋는 이것을 連翹라고 하였다. 그러나 「湯液本草」와 「張介賓本草」는 連翹를 습지에 나는 식물부분에 넣고 있다.〔따라서〕 李德懋의 說은 틀린 것이다(許浚은 連翹는 어어리나 모여름이라고 했다). 爾雅注에는 連翹를 일명 連草라고 하고 있다(疏에서는 翹는 衆草에서 나오는 까닭으로 이 이름을 얻었다고 하였다. 지금 介辣伊나무가 그것이다. 어찌 連翹라고 할 수 있는가).

84) 매꽃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기생하는 덩굴풀인 새삼의 여문씨를 말린 것이다.

85) 인동과에 속하는 사시푸른털기나무인 인동덩굴(Lonicera japonica Thumb.)의 꽃을 말린 것이다.

86) 「지봉유설」, 有村民, 患風疾, 不能出戶癸巳(年)間, 因病荒, 收得兎絲子, 數斛作飯常服之, 舊疾頓愈, 氣力壯健. (勝於未病之前) 又一人少服兎絲子, 飲食倍常, 氣血充盛而忽得背疽, 飲金銀花汁, 兩日至數斥腫即消盡. (蓋兎絲子能補氣故也).

87) 記……

88) 「지봉유설」, 古(人所謂, 「의령」에는 이 부분이 「稱」으로 나와 있다) 雨前茶, 蓋以(三月中)穀雨前茶. 初生嫩葉爲佳(或言正月中雨水前也, 「의령」에는 이 부분이 細注로 「或云雨水前」으로 나와 있다). 李齊賢詩 “香清曾摘火前春”(按)火前者, 採造於寒食, 禁火前也. 新羅興德王時, 使臣自唐還得茶子來, 命植智異山. 今南方諸郡產茶乃其時所種云.

89) 「지봉유설」, 淮南子曰: 服天雄令人武勇. 本草曰: 食鷄肉令人勇健, 聞倭奴臨戰飲酒以壯膽. 許儀俊謂: 日本之兵勇令酒爲膽此也.

90) 「攷事新書」에서는 介捺伊로 나와 있다.

## 加空弄本草.

……<sup>91)</sup> 그 묘함이 매우 많아 모두 말할 수 없다. 지금 잠시 그 대략을 왼편에 모아 놓았다.  
 ……<sup>92)</sup> 장차 열매를 혹은 갈거나 혹은 깎는다. 淸水 혹은 淸油로 조절하여 복용하면 독이 토하여 나오게 된다. 뱀, 전갈, 지내, 거미 등에 상하였을 때 淸水摩를 복용하는데 가루로 갈아 상처부위에 두루 뿌리는 것을 같이한다. 疫疾에 中風이 함께 와서 혼미하여 아플 때에는 水摩를 복용한다. 복통이나 瀉, 痢에도 水摩를 복용한다. 학질에서 처음에 한기가 돌 때도 水摩를 복용한다. 칼이나 도끼에 상하여 피가 나면 가루로 갈아 상처부위에 두루 뿌리면 피가 멎고 통증이 멎는다. 어린 아이(孩童)의 배에 蛔蟲과 疳積<sup>93)</sup> 있을 때 水摩를 복용하면 蟲이 토하여 나온다. 부인이 분만하는데 난산일 때도 水摩를 복용하고, 頭瘡<sup>94)</sup>과 가려움증(痒)이 익었을 때 辣梨를 분쇄한 것과 함께 이 열매를 기름으로 끓여 그것을 비비면 낫는다. 오래되었거나 새로이 風痰에 걸려 구석 구석이 쓰라리고 아파서 곤란할 때 마땅히 이를 분쇄하여 기름에 다려 열을 실어 두루 바른다. 반드시 불에 향하여 따뜻함을 취하고 잇달아 布를 써서 불에 향하여 열을 취해 病人의 몸위에 덮고 재운다. 또한 더 입혀 덜어서 바람맞지 않도록 한다. 潮熱<sup>95)</sup>은 水摩를 복용하면 없어지고, 다시 潮熱이 점점 없어져서 경미해진다.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은 강장한 자는 이, 삼품에 그치고, 노약자는 一�勺 二, 三리에 그치고, 임산부는 복용하면 안된다(李永逵가 말하기를 毒瘡, 毒腫, 疥瘡에는 苦果가루를 蠟油와 섞어 상처부위에 바르면 역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 藥露記.

醫에는 內, 外 두 科가 있다. 內, 外는 또한 둘로 나뉘어진다. 오로지 草木을 전문으로 약을 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역시 金石을 데우고 달군 약을 병용하는 자도 있다. 병을 보고 진맥하는 이외에 파설 평성을 물에 빠뜨려 그 색을 시험하고 그 병의 뿌리를 알기도 한다. 또한 병을 아는 데 있어 대개 敗血에서 유래하여 생기면, ……<sup>96)</sup> 막 발병하는 초에는 혹 진주 분말 몇 톨을 사용하여 피를 서늘하게 한다. 독기를 없애는 약을 조금 ……<sup>97)</sup> (安文思要紀).

## 續集一 耳聾 金瘡 喉痺.

귀가 심하게 먹으면 全蝎의 독을 제거하고 가루로 만들어 사용한다. 술과 함께 조제하고 그 방울을 귀속에 떨어뜨려 그 물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 병은 치유된 것이다(以下는 趙潛의 「養疴漫筆」이다).

枸杞子を 찌서 나온 기름을 點燈하여 책을 보면 눈의 힘이 증가될 수 있다.

金瘡<sup>98)</sup> 중 도끼(刀斧)에 상한 것은 큰 밤 껍질을 갈아 만든 마른 분말을 바르면 곧 낫는다.

91) …… 也.

92) 中毒(두 자 缺).

93) 脾疳.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여 비위가 상하거나 습열이 몰려서 생기는 증상이다.

94) 천연두를 말한다.

95) 발열의 하나로 밀물처럼 일정한 시간에 나는 열을 말한다.

96) 처음에 병이 생기면 多 ……

97) 有(한 자 缺)者.

98) 쇠붙이에 상한 창상.

혹은 경황이 없을 때는 날 것을 씹어서 붙여도 역시 효험이 있다.

喉痺<sup>99)</sup>에는 젓과 거위, 두꺼비의 껍데기와 붕모초를 잘게 갈아서, 서리 맞은 매화나무 열매를 소금에 절인 곳에다 넣고 끓여 술이 되게 한다. 각각을 조금씩 다시 갈아 천으로 짜서 즙을 낸다. 이것을 거위털로 문혀 환부를 손을 따라 쓸어 내리면 가래를 토하고서 낫는다……

### 續集二.

……

新昌徐氏婦人이 産病이 났다. 名醫인 陸某가 二百里밖에 있었는데, 가마로 데려오게 하였다……<sup>100)</sup> 이미 부인은 죽었다. 다만 가슴사이에 微熱이 있어 陸을 들어오게 하여 진찰을 하게 하니 그는 오랫동안 관찰하고 나서 말하기를 “이것은 血悶<sup>101)</sup>이다. 紅花<sup>102)</sup>十斤을 얻으면 살릴 수 있다”고 하니 주인이 속히 그 수만큼 구했다. 陸이 큰 냄비에 그것을 끓였다. 湯이 끓기를 기다려 마침내 三木桶에 그 탕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창틀 격자를 취해서 부인을 그 위에 놓혀 놓고 湯氣가 서서히 거기로 가게 하였다. 조금 지나서 부인의 손가락이 움직였고 半日이 지난 뒤 회복하였다(蘇).

孝宗이 일찍이 痢를 앓게 되었는데(宋) 醫가 그 병을 얻은 연유를 물으니 민물계를 많이 먹어서 이 병이 걸린 것이라고 하면서 진맥하기를 명하였다. 醫가 말하기를 “이것은 설사(痢)입니다. 낫는 법은 신선한 연뿌리를 채취하여 갈아 熱酒로 調服하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그 법대로 공이로 얇게 썰어서 술과 같이 섞어서 여러번 복용하니 곧 나았다. 병든 눈에 생기는 赤瘻은 발 고동 한마리를 잡아 그 껍질을 제거하고 黃連 가루의 끈끈한 것과 함께 이슬이 내리는 새벽에 두면 고동살은 물처럼 되는데 그것을 눈에 세차게 흐르게 하면 赤瘻이 스스로 소진한다.

### 續集三.

기침을 치료하는 방법은 매우 많다. 내가 하나의 치료법을 얻었는데 그것은 심히 간단하다. 香櫟을 사용하여 먼저 씨를 제거하고 얇게 썰어 미세한 가루로 만들고, 때에 맞춰서 [그것을] 술과 모래와 함께 병에 함께 넣고 끓여서 열로 문드러지게 한다. 날이 저문 다음부터 五更(새벽)까지를 한 시간으로 삼아 꿀로 그것을 균일하게 한다음 수면중에 일으켜 세워 손가락으로 찢러 그것을 복용하게 하면 매우 효과가 있다. 또한 越州의 某學錄에 이르기를 “어렸을 때 기침을 하면 百藥으로도 치료를 할 수 없는데, 혹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어린 뽕나무 가지 한 묶음을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매 가지를 寸[의 길이]로 자르고 남비안에서 크게 묶어서 물 다섯 보시기를 사용하여 한 보시기에 이를 때까지 끓인다. 무성한 더위중에 마실 것에 갈증을 느낄 때에는……<sup>103)</sup>

乳香<sup>104)</sup> 가장 갈기 힘들다. 먼저 벽의 틈에 반일쯤 둔다.鉢을 넣으면 이에 끈끈하지 않는다.

99) 목 안이 별정계 붓고 아프며 막힌감이 있는 인후병을 통털어 이르는 말.

100) 한 자 缺.

101) 몸뚱이 뒤에 정신이 혼미하고 가슴이 답답한 증.

102) 국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인 잇꽃의 꽃을 말린 것이다. 잇꽃이라고도 한다.

103) 服一……

104) 뽕나무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의 진을 말린 것이다. 나무껍질에 상처를 내서 흘러내린 진을 긁어내어 잡질을 없앤다.

祠部 趙……<sup>105</sup> 中 역시 이르기를 “乳香을 가는 것은 손발톱 삼량 조각을 취하여 鉢中에 넣어면 더 쉽게 갈 수 있다.”

續集四.

『酉陽雜俎』<sup>106)</sup>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安息香은 페르시아에서 나는데 그 나무는 邪를 피하게 해준다. 그 길이는 三丈이고 껍질 색깔은 黃黑色이고 앞에는 네개의 각이 있고 겨울을 나도 시들지 않으며, 2월에 꽃이 핀다. 꽃은 황색인데 가운데에는 조금 푸른기가 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 나무 껍질을 벗기면 그 진이 엿과 같다. 이름을 安息香이라고 한다”(『本草』에서 말하기를, “安息香은 西戎에서 나는데 그 모양은 松脂와 같이 황흑색이며 덩이로 된다. 새로 난 것도 역시 부드럽고 질긴데, 그것을 불태우면 쥐를 모을 수 있는 것이 진짜다. 또한 이것을 태우면 귀신을 쫓고 神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香錄에서 말하는 安息香은 이것인데, 樹脂는 연소되지 않고 여러 향기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和香으로 취한다. 지금 엿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安息油라 한다”고 했다. 또한 一統<sup>107)</sup>에 말하기를, “三佛齊<sup>108)</sup>는 安息香 수지를 생산하니 그 모습이 核桃과 같다(또 安南國에서 나는 安息香 나무는 苦練과 같이 크고 곧으며 잎은 羊桃와 유사하고 길며 중심에는 유지가 있어 향기가 난다)”고 했다.

續集五.

癰癤<sup>109)</sup>은 江豚과 海豚의 회를 많이 먹으면 반드시 차도가 있다. 나력을 앓은 사람이 있으면 유월에서 구월까지 매일 이것을 회로 먹거나, 혹은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하면 마침내 그 뿌리가 제거되기에 이르러 頃核이 모두 제거된다.

疥瘡<sup>110)</sup>은 쥐(鼠)를 세마리 구워서 먹으면 차도가 없지 않다. 한사람이 疥를 앓아 모든 약이 효과가 없었는데, 먼저 쥐 한마리를 복용하였더니 조금 효과가 있었고 다시 한마리를 복용하였더니 딱지가 생겼으며 세번째 한마리를 복용하였더니 옴이 떨어져 차도가 보였다.<sup>111)</sup>

夔夔<sup>112)</sup>는 눈을 흐리게 하는 증상에 치료의 효과가 있다(『本草綱目』<sup>113)</sup>에 말하기를 “영오를 불에 담가 기를 불어서 즙을 취해서 그것을 방울 방울 눈에 떨어뜨리면 열을 제거하고 붉고 희게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없애준다”고 했다). 나의 외가인 白蓮洞의 윤씨의 아들이 7세가

105) 한 자 缺.

106) 北村四郎, “酉陽雜俎의 植物記事”, 藪内清 編, 『中國中世의 科學技術史研究』(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研究報告).

107) 一統志. 地理書. 中國全土의 地理를 다 담고 있다. 元, 明, 清에 모두 있다(『大漢和辭典』, 1권, 47쪽).

108) 나라이름. 南朝에는 千陀利로, 唐에는 室利佛刹로, 宋에는 三佛齊로, 明代에는 擔卑國으로 불리웠다.

『宋史 外國 三佛齊傳』三佛齊國, 皆南蠻之別種, 與占城爲隣, 居眞臘婆之間(『大漢和辭典』, 1권, 180쪽).

109) 임파절에 명율이 생긴 병증. 주로 목, 귀뒤, 겨드랑이, 자개미에 생긴다. 명율이 작은 것을 라, 큰 것을 렉이라 한다.

110) 피부병의 하나. 옴을 말한다.

111) 이하에서 雜說五에 나오는 腦疽髮際疽…… 구절이 다시 나오고 있다.

112) 머루(산포도)를 말한다. 포도과에 속하는 덩굴떨기나무인 머루의 익은 열매이다.

113) 李時珍에 의해 편집된 52권의 책으로 1590년에 출간되었다. 1,892종의 약재, 1,000이상의 도해, 10,000 이상의 처방이 실려있다.

되어 중두후에 하얀 막이 눈을 가렸는데 백약이 효험이 없었다. 한 村女가 方을 가르켜 주어서 영오의 열매를 취하여 즙을 만들어 눈에다 적시니 열흘만에 나왔다. 진실로 신묘한 방이다. 옛날에는 그 덩굴을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그 열매를 사용한다.

영오란 것은 산포도인데, 방언에 그것을 麻婁라고 한다.

「醫零」의 原文 2.

反胃說

庚中秋李判書 開運 以反胃損脛其病也 凡食飲藥餌之屬下咽卽吐或安一二劑而吐他無疾痛處矣余時在荏川既病踰月而後始往問之肯立肉黑神識尚瞭然也余視其所服諸方始以酒熱治之藥用黃連乾葛之屬後因氣脫漸用人參半夏之類而清涼之味必攪入一二夫然且一方不過一服屢易其方愈久而愈甚余曰反胃治法迥與他異唯有二字符曰徐曰久而已非寒濕爲也

之久則必有驗矣

煎藥說

湯藥煎半無所爲準將沈表而視其痕乎沸騰躍孰知其正氣氤蒸濕孰見其痕將懸橙而求其平乎觸之則覆傾之則破得無誤事乎雖然此皆細故不足恤也原夫藥之所以爲藥惟氣味是用耳味附於氣性附於味失其氣則索其味盡其味則遺其性未有氣已去而性味獨存者也今論藿香一味試煎藿香一振於東家之堂則

日進一分邪氣日退一步若至天平鏹上正氣則建瓴之勢迎刃而解矣不此之爲而輕變藥方溫涼劑進其有不泯伏以減者乎夫春藥不吐而藥不能效者藥之罪也唯反胃一症不可以一擲不中便改效率且如諸病藥入卽吐多非土方此證不然苟非積累持久不可遏止此易知之理也且黃連等物雖隨入卽吐其苦寒之毒足以剋劑元氣而參則性氣平和非積累無以得力若使此病每日煎人參兩許丁香一錢許一口一飲能持十日

一坐香山崔香泄其香如此尚可以療人病乎  
一座山尚云可惜况自始前至于遽澤其間不減數時而  
香氣之泄無時間斷苟如有形之物今可摸捉豈不成百  
座香山乎夫以一撮之藥而泄其氣如山者百尚有何力  
可以灌藏腑達經絡哉故太上不如不前別有其次煎之  
而不泄其氣也今下水一鍾用薄銅器安于鐵口濕紙縫  
其罅次取冷泉灌銅器中熱則刺換之如燒酒法沸氣至  
器遇冷成露還滴罐中故及其濾滓亦只一鍾斯良法也

雜說 酒法

湯劑之酒水相半煎者不得酒力蓋酒被湯熬全泄其氣  
且為藥滓所浸既濾全無酒味若於煎出未去滓之後調酒  
服之酒力倍勝矣

大劑中入人參一二錢參汁盡為藥滓所浸且為濾布所  
染此可惜也宜別煎人參各自濾滓調和攪勻而服則無  
此患也或曰各煎則氣味不相投合不成藥此非理之  
言也 附編砂漿多作末調服調服尚狀况以水

奉婦人當何如也欲產後大虛理之常也若氣  
意亦無妨

雜說二 醫愈完

正氣散

分泉

煉臍之法世所通行余於煉臍之外別得一法此之煉臍  
更獲神效臍骨之上脊脊之末虛陷痰此乃腎內應腎經  
即命門所在也凡觸寒腹痛虛寒發泄或痢疾後重下腹  
疼痛或外腎寒冷囊丸水濕等症每用好艾煉過十餘壯  
如煉臍法灸肉須臾諸痛悉定此蓋命門火衰者之主方

雖少季下都自來虛冷者必宜取效刑疾後重九神效未  
知吾所患適是冷痢耳及後物即將手摩腹腎愈完十餘  
壯一覺強健

傷寒為病隨即解散可也若轉輾彌留必成大患余每遇  
手足枯冷神氣怯弱雖有感疾之意則每用藿香正  
氣散或不換金正氣散一劑少焉必效凡三四腹中爽  
快神氣頓清病意微者或啗乾薑下滯或飲熱茶通腸胃  
可解之若係輪行微感俗稱鼻角之類不要免致

雜說三

我邦清心丸天下有名狀世豈有三十餘種合成一丸而得其力者大抵有清涼之功或中喝氣實者可服愚俗認作起死回生之藥過矣蘇合元之料無非遠物極品藥鋪之物多購每服此物口中生稠涎澀臭逆胃何望其通滯遇有食傷不如服生薑草果養杏木香山查枳實之類可蘇合丸家  
年前有堤川韓生員者能截竊祛魔其法先問生年次問

得病之日院此一方必用三十餘味小者二十餘味溫者涼者補者瀉者雜然具列然每服一劑病則良已百發百中聲名噪甚余每笑之爲魔道一日余大寒戰發熱諸症甚厲韓陽智大韓來視余病苦勸之遂見堤川公問年日訖抽針刺頭部數處隨授一方韓公曰吾去君且不服矣坐而煎之以勸余不得已強飲一劑果獲神效去病如掃明日梳洗躬詣韓公而謝之天下事未可盡知也世以瓊玉膏爲延年益壽之仙方不知生地黃是

雜說四

痘家用驗昆亦名蟬鼠於初發熱時濃煎去腸取汁服多吉益痘之所以難成者唯毒不能穿透皮肉皮肉土也驗有穿土之能其性味必能穿透肌肉如穿山中麝香之屬亦能穿透而此皆走散真氣故不宜安用驗則兼有補性所以於痘相宜耳驗鼠類  
立春日將雞蛋數枚同爽溺紅中埋地雨水日出之量兒予啗一二三枚亦能預解痘毒蓋痘者胎元之毒也雜

子屬蕪溺所浸化其本性亦有胎元解毒之義故所以有益歟令種痘法大行都無事矣  
漆瘡取青蘆油俗名漆油一勾許酒調服立效余所目驗也

雜說五

芝峯云浮腫服青蘆油即法陳久者服有效狀或服之洞泄以死逆奇書曰病人不宜陳油飲食況可多了  
髮際及諸癰毒將發取鹿角火煨燂作灰處亦消歇而安又方腦疽髮際疽初發腫痛時臭蟲十餘個俗名和麻油俗名研汁塗之即痛定而紅暈紋一兩日即痊發亦效  
又腦疽初發

三劬細切因

產難屢日濱死者桐麻油蜂管用生各一鍾調合微其產如達神效

雜說六

咽喉腫痛閉塞紙花上飛蛾燒烏木吹入喉中或云蛾有龍腦臭者乃效蓋能散氣也  
白瘡如豆大者發於面部或手足俗謂之水底筒竹截取四五枚如筆管燒其一頭烟出上竅另用芫滑器受之待烟液凝著即取液擦之數次不過七八日水瘡自落其驗如神先用針頭刮去瘡火次用烟灰擦之尤捷

水疱疔先作麩餅圍繞患處火將雞子清注滿以沒疔頭腐度候至數時或數有細紅線微微射出再用他雞清注滴若無紅線便愈

雜說七

古方皆筒血土四物象主以君子痰主二陳漸益添增愈多愈亂隨症雜治反傷原本鄉村以單料專攻往往多驗藥力專也近有百合一種花白色狀如小壺夏旱時方盛有醫者用於喉病輒效古方云百合為丘引此又治

三劬細切因

戶而宿諸藥不效單服黃連丸下減旋增薑椒之屬不效近口丁卯夏偶因肺疾嚙下橘皮數片覺肺氣通暢遂竟一兩宿暑頓祛絃絲無害莫知其改其後偶聞說郭云宿暑非陳皮不能拔嗟予古人已驗之矣嗟予安得起後菴於九泉而語此事也獨閱本村縣陳皮治暑文

余年未五十已患齒痛每喫甘物必發以爲齒也觸風更甚以爲風也用已豆川椒越甚以爲熱也燒蔥蒜等含之越甚意以爲熱也於是嚼黃連含之一宿而痊其效如神

雜說八

蓋黃連治熱兼治蟲也若於寒痛者不可用也  
一田夫李六十喜飲白酒四月未患血痢日五六次諸藥不效喫鮑魚膽時一碟頓痊前此一婦人得效頗人得之良醫云

腎虛腰痛來誼叔用杜仲酒浸透炙乾搗羅爲末無灰酒調下三服而愈出張記  
有乳癰因食冷肉心脾發痛不可堪忍以陳萊菔五片

間爛漫用之誤矣

以孔道飼小兒藥者令乳母緊束乳下其意蓋欲使藥汁不徑至腹而入于乳也凡入咽之物皆先入胃中傳于脾而消化成液然後爲血爲液爲乳安有直自咽徑至乳者哉下部之藥使之上服亦殊可笑唯咽喉之藥一合一隨徐徐下之爲善此外治之義也

我邦鍾小而枕大殆于十鍾爲一枕然皆觀醫書有令磁枕安于鍾內豈非鍾大枕小乎枕小孟也孟飲器也碗蓋

飲器之小者也看中國文字易以我俗解認若此類甚多

製附子法

附子一枚先用甘草五錢濃煎煎甘草於狹器內少可及全浸一宿割取尖楔處取下體劈作四瓣又一宿甘草汁已取出放乾俟水氣稍斂割去皮臍臍心再用甘草五錢濃煎如前取五片浸一宿取出放乾俟水氣稍斂風乾至燥濕相半時候捻少許嘗之如尚大辣戟口卽用文火炒用之若微辣量欲爾屑而不至爾者止

乃要般勢也再浸之汁何爲棄之

附子入藥時須詳審其味辣味厚者用三五七分亦可取效辣味薄者可用一二三錢若全無辣味爛嚼而唇鹹不爾者雖服一兩無意此服附子之澤耳故附子製法不可不精又若太生太峻而臨煎不管及其吞而毒發爲害不少口吐涎水頭目眩暈漸生癰毒此不可不慎

與猶堂集卷之

洵水 丁鋤 著

醫零

集古一

辛稼軒初自北才還朝官建康忽得癰疽之疾重墜大如杯有道人教以取葉珠葉珠即葉仁用東壁土炒黃色然後水煮爛入砂盆內研成膏每用無灰酒調下二錢卽消沙隨先生晚年亦得此疾辛親授此方服之方消城郎人患此

去矣 宋高宗瀉疾醫王繼先乞賜瓜食之上覺其甘  
問朕可食此乎繼先曰臣索瓜將以啓陛下也詎進瓜食  
之甚適渴亦隨止 葉和翁曰朝聞見錄  
御藥服伏火藥多腦後生瘡熱氣冉冉而上一道人教灸  
臥市穴十數壯雖愈時時復作又用陰煉秋石以大豆卷  
濃煎湯下遂悉平和其陰陽也 玉華雜錄

集古二

犀難和擣鈎屑入衆藥中搗之已而衆藥節盡犀屑猶存

一醫簡元達者解犀爲小塊子方一寸半許以極薄紙包  
裏置懷中近肉以人氣蒸之候氣薰蒸決洽衆藥投口中  
急搗應手如粉因知人氣之粉犀  
麥門冬去心古澹湯化少時則易去今只以銀銚火上  
微焙隨手漸剝極易腐力又不爲湯漬去藥味乳香沒藥  
最難研若作元子則以乳鉢研略細爰入酒或不研頃刻  
如泥更無滓 若酒糊元則入酒研若以麪則入水研甚  
省力且不飛走虧耗分兩

集古三

夷堅志曰虞雍公遣中官若得疾瀉痢連月重九日夢得  
神方服之遂愈其神方曰暑毒在脾濕氣連脚不泄則痢不  
痢則瘧獨煉雄黃蒸餅和藥甘酢作湯服之安樂  
張世南曰甘經謂捉得龍伏得雄言雄黃見火則飛走爲  
經焰最難伏也青城山道友之法用雄黃不拘多少研細  
甘燭火內煨令通紅取出攪雄黃末入焰稍內急用桃枝  
攪轉卽成水矣急傾出瓦礫內微側碟子則清于一邊俟

集古四

疑取山去麝者研細以宿蒸餅腐元如藥豆大每服三元  
至七元如前法服雄黃末一兩大約用焰硝一錢  
鼻下口上謂之入中趙孟頫曰自此以上眼耳鼻皆雙竅  
自此以下口豎二便皆單竅三虛陽正成泰王弼州曰婦  
人有雙乳單竅子或曰人身總有十二竅入中以上六  
竅口鼻是也入中以下六竅口乳臍二陰是也故曰人  
中此說似勝

說時原

元斗杓患泄瀉無度問藥於尹孤山諱善孤山令飲冷盡  
量而止子弟曰彼常飲酒我家故令疾益甚耳斗杓乃夜  
浴就井痛飲之病良已子弟請其故曰爾等不和也彼欲  
殺我寧以藥殺之耶余自幼每苦暑泄輒以冷水得效以  
授人亦罔不效者  
盧慶麟服鐵液踰年精神頓耗乃死俞大禎服松脂累年  
朱實季海壽常服何首烏朱英壽服松葉皆疽發而疽服

藥者宜戒

集古五

鄭協少患心熱服輪回酒即自大有效郭止善學服數年  
不效而殞李挺曰脾胃虛及氣弱  
芝峰曰元錚少時用鯨油清書患眼不視物用醫言三年  
閉目乃得痊  
海西有人喫蝦鹽患腹痛甚暴知其中毒即多飲燒酒乃  
吐所食鹽物已蠢動作魚形其病遂愈本州曰周禮以

齊病丸又用白礬及細茶分爲末每五錢泉水調下得

則止吐前怪或八足六翼如蚪蚪斬之不斷焚之不燃用  
白礬燒之立死否則對時復還其家又云古方服白礬荷  
服其汁並臥其根其功較也鄭洪若者  
芝峯云虎中藥箭食青泥而解野猪中藥箭逐薺花而食  
雉被鷹傷銜地黃葉貼之鼠中毒如醉取泥汁飲之餽野  
鼠子爲蛇所傷母鼠銜豆葉嚼而傅之皆治吐夢疽及勇  
魚被傷皆以松脂傅瘡處

說郭云木瓜灰和麥糊飯投水中魚食之而死秦椒爲末  
和稻飯雀食之則死今椒皮浸水上流則魚皆死而浮出  
藍漆和飯蠅食之則死

集古七

昔有村民患風疾不能出戶矣已間焉因兵荒收得兔絲  
子數斛作飯常食舊疾頓愈氣力壯健又一人小兒免獠  
子飲食倍常氣血充盛而忽得背疽飲金銀花汁兩日至  
數斤腫即消盡 古詩四上有百尺絲下有千歲苓記

盡伐老桑作棺板以應權貴寄生遂絕  
補骨脂一名刺韭子與地勝覽江原道歙谷等地亦產此物無乃異而同者耶

朱古八

古稱雨前茶盞以穀雨前初生嫩葉爲佳成云雨李齊賢詩香清曾摘火前春火前者採造相寒食禁火前也新羅興德王時使臣自唐還得茶子來命植智異山今南方諸郡產茶乃其時所產云

淮南子曰服天雄武男本草曰食粥雞肉令人勇健後奴  
臨戰飲酒以壯膽謂儀後謂日本之兵酒爲膽此也  
辛夷花一名迎春花一名木筆花早春首發有迎春之義  
花形如筆頭有木筆之狀又有一種早春首發花黃可愛  
俗名介辣伊李德懋以此爲連翹狀湯液本州及張介賓  
本草連翹入杜陽草部李說非也許慎曰連翹即叶爾雅注連翹一名連草之介辣伊木也安得爲翹今

加吃弄本草

白醫應驗水  
摩少許和之

以布向大取焚覆病人身上而睡人以被蓋忌見生風  
潮熱水摩服即退非潮熱漸漸減而輕矣服此藥者強  
壯者只可二三七分弱者一分二三釐止孕婦忌服李氏云和蠟油敷患處亦效

藥露記

醫有內外二科內外人分爲二有專以草木爲藥者亦有  
兼用金石椒煉之藥者其有病疹脈之外以玻璃瓶盛瀉  
水驗其色識其病根又知病機由敗血而生則初病多

也其妙甚多不能盡述今姑撮其大略于左 中藥服  
將果或摩或刮以清水或清油調服毒即止出 蛇蝎蜈  
蚣等傷清水摩服並刮末敷患處 痲疾並申風唇仆水  
摩服 腹痛或瀉或痢水摩服 瘧疾初作寒時水摩  
服 刀斧傷血漏刮末敷患處即止血止痛 孩童腹有  
蛔蟲並痘積水摩服之蟲即吐出 婦人分娩難產水摩  
服頭瘡痒爛並辣梨切碎此果以油煎之擦之即愈新廢  
風痰百肢疼痛難當裁碎油煎乘熱徧擦須向大取煖隨

將發之初或用珍珠末幾分麻涼血消毒氣之藥少有  
 安文思要記

續集一 月聲 金聲 銀聲 銅聲

耳暴聾者用全蠟去蟲屎末酒調滴耳中聞水聲即聾愈  
 如神以下越過者均屬筆

枸杞子搗油點燈觀書能益目力

金箔刀斧傷用獨殼大栗研爲乾末傅之立止或倉卒用

生嚼傅亦驗

喉痺并孔龜蝦蟆衣鳳毛草搗細入鹽霜梅肉者酒各少

許和再研細布絞汁鵝毛刷患處隨手吐痰即消

新昌徐氏婦病產有名醫陸某在二百里外興致之房  
 婦已死但腎胎間猶微熱陸入診之良久曰此血悶也得  
 症甚數十斤則可活主人感購如數陸乃爲大鍋煮之候  
 湯沸遂以三木桶盛湯于中取蔥椒藉婦人投其上湯氣  
 微復進之有頃婦人指動半日遂蘇  
 孝宗嘗患痢疾醫問得病之由詳以食湖蟹多故致此疾  
 遂令診脈曰此冷痢也其法用新米藕節細研以熱酒調  
 服如其法并細酒調數服即愈

續集三

病眼生赤瘻者取田螺一枚去掩以黃連末糝之置于露  
 中曉取則肉化爲水以之滴目赤瘻自消

治嗽方甚多余得一方甚簡但用香櫞去核薄切作細片  
 以時酒同入砂瓶內煮令熟爛自晨至五更爲度用蜜拌  
 勻當睡中喚起用匙挑服甚効又越州某學錄云少時苦  
 嗽百藥不療或教用向內采桑條一束每條寸折內鍋中  
 大約用水五碗煎至一碗於盛暑中遇渴飲之服一月

重止

乳香散難研先置壁罅中半日許入鉢乃不粘桐師  
中亦云研乳香取指甲三兩片置鉢中尤易末爾

續集四

酉陽雜俎曰安息香出波斯國其樹叶如辟邪樹長三丈  
許皮色黃黑葉有凹角經寒不凋一月間花紫色心微碧  
不結實刺其樹皮其膠如俗名安息香本叶云安息香止  
風者為月又燒之去其毒來神香舞云安息香此乃樹  
脂不宜於燒而能發散香故取以和香今有如錫者謂之

安息油又一統云三佛齊產安息香樹脂也其形如核桃

腿又安南四處安息香樹如苦楸大而  
直葉如羊桃而長中心有脂作白

續集五

癰癰多服江豚海豚膽必差有人患癰癰自六月至九月  
每日服此鱸或烹食或炙食遂至去根項核皆除

疥瘡及三鼠服之則無不差一人患疥百藥無効初服一  
鼠少有效再服一鼠作瘡三服一鼠落疥即差

腦疽髮際疽初發腫痛時臭蟲十餘個俗名虱  
器伊初汁金

頭莖治目中障翳本草綱目云頭莖藤以  
藥汁滴入目中去熱家白蓮洞尹氏之子年七歲痘後白膜障目百藥無驗有  
村女指方取頭莖子取汁滴眼旬日而疹滅神方也古用  
其藤今用其實○頭莖者山葡萄才言謂之頭莖